

특 집 | 우리는 이런 도서관을 꿈꾼다

도서관 ; 숨 쉬다

Library always Book的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 책과 서가를 들고 돌아 책 한 권
 집어 들고서 걸음을 멈추더니 이내 곧 편하게 책을 볼 공간을
 찾아서 움직인다. 마치 숨을 쉬듯……. 도서관은 책과 사람을 불러들여
 한데 엮어서는 밖으로 내뿜는다. 사람들은 때로는 500m 쇼트트랙처럼
 책 사이를 들고 돌아 급하게 도서관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3,000m 쇼트
 트랙처럼 아주 천천히 도서관에 머물다가 돌아가기도 한다. 가끔은 한꺼번
 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몰려 금세 복새통을 이루고 급기야는
 거칠고 급박한 숨을 내쉬듯 도서관은 서가에서 책을 뿜어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책과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도서관은 가지런히 숨을
 고르고 내일을 준비한다. 이렇듯 도서관은 늘 사람들과 복적거린다.

도서관은 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나 관념들은 모두 정보나 지식, 개념들
 로 정리되고 책으로 엮인다. 결국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책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책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잘못된 정보나 지식들이 버젓이 책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한쪽 방향에만 치우친 생각이 담긴 책들도 있다.



조 내 식*

* 느티나무문화재단 사무국장, nasik@paran.com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나 지식을 도서관이 다 알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역시 일생동안 그 많은 책들을 다 접할 수는 없다. 이는 곧 도서관이 어떤 책을 얼마나 많이 갖추느냐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중요하고 적합한 책이 도서관에 있느냐와 맥을 같이 한다.

결국 가치 있는 책으로 잘 짜인 도서관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나 지식들 중에서 잘못되거나 편향된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거름망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정확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밑바탕을 이룬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옹고 그른 가치의 기준은 무엇일까? 도서관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책을 나누거나 뽑아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책에 무슨 표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모든 가치들은 그 본질이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도서관에서는 옹고 그른 책을 모두 함께 두어, 사람들이 옹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책은 모으되 판단은 사람들 몫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목적과 규모를 가진 도서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책을 통해 가치관을 키우고 세상의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은 어떠한 힘의 논리나 지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책을 담아내야 하고 도서관이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책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도서관답다' 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에 사람이 온다

책을 찾는 사람이 도서관으로 온다. 일마다 주마다 혹은 하루 종일 도서관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 한두번 혹은 일생에 몇 번 도서관에 들리는 사람이 있다. 도서관에 들렀다가 오매불망 갈망하던 책을 만날 수도 있고 책을 못 찾거나 혹은 도서관에 책이 없어서 왔던 길을 그냥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도서관이 매일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사람들이 도서관에 자주 올 수 있도록 어떤 묘수를 써야 하는 걸까? 그래서 주마다 오는 사람이 일마다 오고 어쩌다 한두 번 올까말까 하는 사람들도 자주 도서관에 오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책을 가진 도서관은 분명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도서관에 자주 오게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매일 혹은 어쩌다 한번 도서관에 오더라도 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책을 권할 수 있다면, 다른 도서관 보다 이용자나 대출권수가 적고 많음은 중요하지 않다. 하루에 이용자가 한 두명 뿐이거나 평일이나 낮 시간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이 바람맞는 도서관도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사람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영화나 연극은 극장에서 그림이나 조형은 미술관에서 음악회나 공연은 공연장에서 사람들과 만나야지 도서관이 복합 문화공간을 지향한다고 해서 이 모든 활동과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불러들여 붙잡아둘 필요는 없다. 도서관이 책과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때 도서관은 비로소 도서관이 되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책에 매력을 느껴서 도서관을 찾아야지 다른 이유로 도서관을 찾는다면 도서관은 머지않아 그 이유로 인해 경쟁력과 가치를 잃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도서관을 대체할 명분과 이유를 찾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도서관 ; 세상을 숨 쉬게 하다

2006년 한국 도서관은 자라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는 계속 더 많은 도서관이 필요할 것이고 그 도서관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은 그저 대수롭지도 않고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는 이제 막 인쇄기를 빠져나와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종이가 책으로 엮이고자 숨을 죽이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책을 찾기 위해 도서관을 숨차게 들락거리고 도서관은 사람들을 향해 숨 없이 책을 뿜어내고 있을 것이다. 바로 도서관은 세상을 숨 쉬게 하는 그런 곳이다. 